



김재윤 교수의 개혁주의 문화관 교회 중심적 기독교 문화관

김재윤 지음 | SFC출판부

한국교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개혁주의 문화관’,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문화적 개혁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에 기초한 개혁주의 문화관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성숙이 원론을 극복하고 시민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대(對)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더욱이 주일 하루 뿐 아니라 한 주간의 6일이 중요하며 예배당 안 뿐 아니라 예배당 밖 세상 속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킨 점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한국교회에 가져다 준 큰 공헌이었다. 한국교회는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는 이원론이라는 질병을 매우 심하게 앓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앓고 있는 한국교회의 심각한 중병(重病) 중의 하나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는 군부독재 치하의 무시무시한 공안(公安)적 분위기가 상존해 있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온갖 사회적 불의, 부조리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몸살을 앓아왔다. 여기에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성(聖)과 속(俗)을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경향으로 인해 정치, 사회적 현실에 침묵하거나 때로

는 야합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일부 사회참여에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보수적 한국교회에는 지금도 역시 타계적(他界的)인 내세 중심의 신앙과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을 죽음 이후와 개인의 내면적 경건, 그리고 교회 제도권 안에서의 생활로 몰아가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

특히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신앙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폐쇄적인 종교의식의 영역과 개인의 내면적 신앙의 영역으로 가두어 버렸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 경건과 교회생활, 복음전파에만 관심이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한국교회는 현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축복과 번영의 신앙, 소위 기복신앙적 태도를 부추겨왔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태는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나 오직 자신만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에 대해 도피적이거나 타협적인 양 극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혁주의 문화관이 한국교회를 교정하고자 했던 지

개혁주의 문화관이 말하는
‘교회 중심성’이란
먼저 “교회가 신앙고백적 기초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전제”한다.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개혁주의 문화관은 문화적 적극성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지닌 치명적인 문제점, 성숙이 원론과 세속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상당 부분 한국교회의 의식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생, 그리고 기독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교회를 치료하는 효과를 낳았다. 종래에 사회 참여는 대부분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 기초한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여기던 분위기에서 소위 보수적 복음주의권의 사회적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개혁주의 문화관을 토대로 펼쳐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많은 부분 해소하는데 기여를 했다.

김재윤 교수의 <개혁주의 문화관>은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동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에서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혁주의 문화관에 대한 비판은 이미 이천 년대 초반에 소위 ‘기세비판(기독교 세계관 비판)’이란 이름으로 <복음과 상황>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기세비판은 상당 부분 퇴색되어버린 실천부재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원인이 기독교 세계관, 곧 개혁주의 문화관 자체에 있

는 결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FC를 통해 최근 출간된 <개혁주의 문화관>은 어쩌면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답변일 수 있다. 나아가 종래의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놓쳤던 개혁주의 문화관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환기시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상아탑을 중심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향하여 개혁주의 문화관이 놓쳐서는 안 되는 ‘교회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회복해야 할 동력을 바로 개혁주의 문화관이 지니는 ‘교회 중심성’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개혁주의 문화관의 키워드인 ‘교회 중심성’의 의미를 밝힌다. 하향 평준화된 한국교회에서 ‘교회 중심성’이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캄펜(Kampen)신학대학교 유학 중 네덜란드 해방과 개혁교회에서 8년 이상을 성도로 생활한 저자에게 ‘교회’가 갖는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는 신학 실증, 윤리실증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개혁주의 문화관이 말하는 ‘교회 중심성’이란 먼저 “교회가 신앙고백적 기초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전제”한다고 밝힌다. 기실 “개혁주의 문화관의 현실적 실현은 튼튼한 개혁교회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9) 그는 이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혁주의 문화관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적 지점에서 있는 글라스 스킨더, 그리고 대안적 문화관으로 제시하는 데이비드 밴더루넨과 J. 다우마 등 모두에게서 ‘교회 중심성’이란 심대한 요소를 읽어낸다. 이들 모두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다.

저자가 말하는 ‘교회 중심적 개혁주의 문화관’은 기

독교와 문화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를 그리스도-교회-피조세계라는 삼각관계 속에서 진행한다. 이것은 종래의 문화에 대한 논의의 주를 이루었던, “한 개인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문화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있게 사회문제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개인주의’적 접근과는 대조된다. (23) 개혁주의 문화관의 핵심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우주적, 왕적 통치’에 대한 고백은 늘 교회를 통하여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강조점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23) “우리가 세상문화를 이해하고 변혁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 받는 것”과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책임있는 군사로 올바르게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4)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된다.

무엇보다 <개혁주의 문화관>을 통한 저자의 중요한 공헌은 ‘교회 중심성’을 담지(擔持)한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재평가라는 점에 있다. 2부에서 저자는 개혁주의 문화관의 기초를 이루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의 배경에는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 프랑스 대혁명의 계몽주의 정신뿐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각까지 지배하고자 했던 국가의 지배가 존재했다. 카이퍼는 계몽주의라는 근대정신과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원했다. “그의 관심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도구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있었다.” (54) 이러한 토대 위에 지속된 그의 관심은 “하나님도 주인도 없다” (73)는 무제한적 자유를 갈망하는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에 반(反)하여 “세상의

한 치도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85) 두는 것이었다. 그의 문화관의 핵심적인 요소인 일반은총론 역시 이러한 ‘교회 중심성’에 입각해 설명된다. “특별은총 아래서 은혜의 방편들을 가지는 제도적인 교회가 있다면, 이 제도적인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건설하는 기독교적 가정, 언론, 학교, 각종 연맹 등을 포괄하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있다.” (85) 일반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펼쳐가는 사회적 책임과 문화적 소명은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로서 감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문화관 전체는 교회 중심적인 그리스도 통치 사상에 기초해 있다.

3부에서 저자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했던 글라스 스킨더의 문화관을 소개한다. 글라스 스킨더의 문화관은 한국교회에 좀처럼 소개되지 않았던 문화관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흔히 스킨더는 카이퍼에 대한 반대자로서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을 반대하고 영적인 반립(反立), 다시 말해 반(反)문화적인 특징을 강조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책에서는 스킨더와 카이퍼가 결코 적대적 대립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스킨더는 카이퍼가 말한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치라도 없다”는 문장을 인용했다. (142) 그 역시도 개혁신학자로서 ‘문화명령’을 강조한 문화신학자였던 것이다. 다만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주의’, 다시 말해 ‘교회 중심성’을 담보한 문화적 사명이었다. 스킨더가 강조한 ‘문화명령’의 핵심적 주체는 바로 교회였다. 그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저서에서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과 일반은총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삶이 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었다. (147) 그가 강조한 영적인 반립 사상은 흔히들 오해하듯이 반

(反)문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만연한 죄의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회가 문화적 사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인식이었다. 교회는 문화적 주체로서 기독교적 문화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 (162)

계속해서 저자는 4부에서 문화관에 대한 대안적인 개혁주의 패러다임들로서 데이비드 밴드루넨과 J. 다우마를 소개한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카이퍼와 스킨더의 견해를 ‘문화 변혁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들의 견해가 문화에 대한 과도한 적극성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한다. 좀 더 다원화되고 상대주의적 관점들이 만연한, 소위 ‘기독교 없는 사회’가 도래한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178) 따라서 밴드루넨은 ‘자연법-두 왕국론(Natural law-two kingdoms paradigm)’을 통해 다우마는 ‘나그네 됨’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관을 개진시켰다. 밴드루넨은 그리스도인은 세속의 왕국과 영적인 왕국, 곧 두 왕국에 속해 있는데 세속의 왕국에 참여해서 그것들을 변혁하는 삶보다는 철저하게 영적인 왕국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상과의 적절한 간극에서 오히려 교회는 세속화를 막으면서 나아가 현대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우마는 나그네로서의 교회는 하늘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자세라고 주장했다. (198) 문화적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에 대한 ‘즐김과 누림’이다. “칼빈의 의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선하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다. 그가 강조한 것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다. (197) 저자는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두 사람의 문화관에 대하여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고 부연한다. 오히려 현대 사회의

교회의 위상이 악화되고 다원화된 현실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문화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문화관으로 두 사람에게 대한 소개를 끝낸다.

김재운 교수가 제시하는 개혁주의 문화관의 핵심은 한 마디로 ‘교회 중심적 문화관’이다. 이것은 교회만이 문화의 주체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적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터전은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최태연 교수의 지적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그동안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생명력의 근원으로서의 교회를 벗어난 지성운동으로서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김재운 교수의 <개혁주의 문화관>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 | 윤성현

합동신학대학원 (M. Div. 목회학)과 고려신학대학원 (S.T.M. 기독교 윤리학)에서 공부하였으며 한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청소년, 청년 대학생 사역에 전념하였다. 현재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과 「개혁신앙 아카데미」의 총무로 섬기고 있으며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조망하려는 한 시도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윤리학 박사과정 (Ph. D.)에서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개혁주의 문화신학>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다.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윤리의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다.